



2024년 11월 3일(제1218호) 연중 제31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신앙생활”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을 갈망하지만 대부분 굶주리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예를 들어 운동이나 예술, 음악이나 요리를 배우려고 할 때처럼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까지 하십니다. ‘계명’이란,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계명’이 들어있지 않다면 과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사랑의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와 가치관, 성격유형, 사고방식이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 등 사랑은 한 가지 말로 정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랑을 통합하고 성장시켜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시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에리히 프롬의 진단처럼, 자신의 성공, 출세, 돈, 권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지만,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선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복음을 통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처음엔 잘되지 않겠지만 ‘1만 시간의 법칙’(아웃라이어)이라는 말처럼 사랑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 주신 그 사랑을 닮아갈 것이라 희망합니다.



윤대성(새레지오원) 신부
장봉오리장(해병대 제2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신명 6,2-6
- 회 탐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제 2 독 시** 히브 7,23-28
-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 음** 마르 12,28ㄱ-34
- 영 성 제 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여덟 번째 시집

그러나 이 마을에서도 쫓겨날 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 사당이 하나 있는데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안 쓰고 버려져서 폐허가 되어 갑니다. 백성들의 착취와 가렴주구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양반 하나가 백성들을 등쳐먹을 심산으로 사당을 개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당을 개축하겠다는 말은 백성들한테서 돈을 긁어 모으고,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제안이 실현에 옮겨진다면 사당 근처에 살고 있는 안곡 교우들도 돈을 내야 하고, 노동과 부역을 해야 합니다. 안곡은 그 사당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양반의 약탈에 항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다른 먼 곳으로 쫓겨가야 할 판입니다.

난파선에서 구출된 제주도 사람은 왕도(서울)로 올라와서 판공성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기 집안이나 제주도 사람을 입교시키기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천주교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기는 하나, 그들이 현정세하에서는 천주교를 믿고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한답니다. 앞으로 신앙의 자유가 오면 그때 가서 신자가 되겠다고 약속할 뿐입니다. 그 제주도에서도 조선 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음은 좋으나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참 하느님을 섬기고 자기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면서도, 천주교를 엄금하는 조선 법령에 대한 공포 때문에 천주교 신앙을 고백할 만한 용기와 담력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특히 남편과 부모들 지배 아래 있는 여인들이 장애를 받고 날마다 울음으로 지내며 한숨으로 쇠약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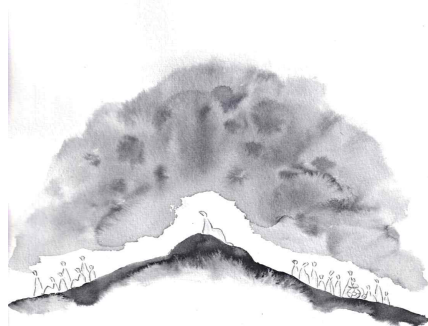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척박한 불모지의 곳으로.	이 자리에 앉아, 몇 번을 뒤뉘고만 있습니다.
누구에게 갈까. 힘겹고 외로운 이에게로.	이제 그만 일어나 한 발을 떼 때입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십자가 위의 예수님과 성인들



피에솔레 에피파니 마스티(Master of the Fiesole Epiphany)
 1491년 ~ 1495년경 제작
 패널 위 템페라와 유화 / 304.8 × 256.54 × 38.1cm(액자 포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미국

빈센트 페러 성인(왼쪽)은 발렌시아 출신의 도미니크 수도회 소속 수도사로, 왕성한 선교와 저작 활동을 하였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책의 한 페이지를 열어 최후의 심판 시 채림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펼쳐 보여주고 있으며, 세례자 요한 성인과 마르코 복음 성인(오른편에 충성과 위엄을 상징하는 사자가 보인다.)은 무릎을 꿇고 이 장면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인들의 모습을 통해 대사제로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회 내의 실크 제작자 길드가 후원한 제대를 위해 제작된 제단화이다.

고난과 수난의 모습이 아니라 왕관을 쓴 대사제 모습의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십자가 앞에 빈센트 페러 성인, 세례자 요한 성인, 마르코 복음 성인, 안토니우스 성인(Saints Vincent Ferrer, John the Baptist, Mark and Antoninus)과 함께 계신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공중에 떠 계시고, 예수님의 오른발에서 흐르는 피가 성배에 담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율법은 약짐을 지닌 사람들을 대시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이드님을 대시제로 세웁니다.” (히브 7,28)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님 위한 미사 - 연중 제31주일: 장광오리정 윤대성 신부

◆ 교구장 동정

- 성요셉(부사교)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3일(주일)
- 2024년 사제 총회 및 연수
 때·곳: 11월 5일(화) ~ 8일(금), 양지영성교육원

-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때·곳: 11월 6일(수) 10:00,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